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The Types of Family System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Family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崔妍實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Youn Shil Choi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용어의 정의 및 연구문제 설정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distance through semantic approach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 in the subtypes of 'Extrem Family', dysfunctional families by classification of Olson and his associates' Circumplex Model.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072 adolescents living in Seoul, Korea. The survey methods were questionnaires including FACES II and The Psychological Distance Scal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he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crosstabs and one way-anov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The levels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the psychological distances with father, mother and siblings perceived by adolescent were high.
- 2) The most of subject's families belonged to 'Balanced Family' in the types of family system. 'Extreme Family' type showed the lowest frequency and the main subtypes of it that had the highest frequency were 'Enmeshed Chaotic Family', 'Disengaged Rigid Family'.
- 3) While adolescents of 'Enmeshed Chaotic Family' perceived most closely with other family

members, those of 'Disengaged Rigid Family' most distantly, totally and in evaluation, potency and activity, three subfactors in psychological distance.

4) There were differences of unit points in subfactors of psychological distances with other family members perceived by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system. While the points of 'Enmeshed Chaotic Family' were the highest, those of 'Disengaged Rigid Family' were the lowest.

5) While 'Enmeshed Chaotic Family' were located most closely, 'Disengaged Rigid Family' were located most distantly in the mutual distances and direct distances among family concepts on semantic space.

I. 서 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의 역할·권력구조나 기능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 내에서의 가족원들의 심리·정서적인 상호관계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변화과정에서 사회집단으로서의 가족은 조직력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족이 나타날 가능성 더욱 커지고 있다(최재석, 1982 : 303).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가족과정이 가족원 개개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환경임을 강조하는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같은 문제가족은 가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가족을 이루는 하위체계들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복지감을 위협하는 역기능적인 체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송성자, 1992 : 104)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가족기능상의 장애를 겪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가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심리적 독립 욕구의 증가와 같은 발달단계상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유안진, 1987) 가족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빈발하는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연구들(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 이창섭, 1977 ; 조숙행, 1979)이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내의 역동 심리적 과정 가족문제 등에 관한 연구들(석

말숙, 1989 ; 임용우, 1984 ; 정인채, 1983)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 가족의 갈등과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내 심리적 역동이나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상의 관심과 실천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분야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족을 진단하고 그 가족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 역동성의 여러 차원을 고려한 여러가지 유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Beavers & Voeller, 1983 ;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1983). 특히 Olson, Sprenkle과 Russell (1979)은 응집성과 적응력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가족의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체계유형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유형론은 가족관계분야의 여러 변수들과 관련되는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적 차원에서의 진단도구로서도 많이 활용되었으며 국내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해내는 진단도구로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임용우, 1984 ; 유순덕, 1987 ; 정민자, 1992).

한편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심리치료나 상담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언어나 의미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가족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Anderson & Goolishian, 1988 ; de Shazer & Berg, 1992). 즉, 인간을 언어산출체계(language-generating system)나 의미산출체계(meaning-generating system)로 보고 사회적으

로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의미나 이해가 상담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치료분야 내에서도 특히 언어를 통해 반영되는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치료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de Shazer & Berg, 1992).

그런데 본격적인 치료과정안에서의 언어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미분법에 의해 나타난 언어적 평가를 통해 심리적 의미를 대인자각의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연구들(김재은, 1974; 노영남, 1982; 이수원·김정권·조공호, 1974; 윤진·조석미, 1980; 정양은, 1965)과 이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 활용한 연구들(염태호·김상태·정동철, 1972; 오홍근, 1979)이 있었다. 정양은(1965)이나 김재은(1974) 등은 의미미분법을 통해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가족내 심리적 거리는 한 가족원과 타가족원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가족의 심리적 분위기나 환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중심으로 가족체계유형 분류에 의해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가족들 내에서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들을 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체계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역기능적인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었고, 또 역기능적인 가족의 하위유형별로 가족역동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시도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서 역기능적 가족이 가족내 심리적 과정의 한 측면에 있어 정상가족과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역기능적 가족에서의 가족구조나 기능상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족상담이나 치료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가족체계유형

가족학자들이나 가족치료자들은 어떤 가족체계가 효율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있는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한 진단적 기준이나 유형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Beavers & Voeller, 1983; Kantor & Lehr, 1975; Olson et al., 1983).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자들 가운데서 특히 Olson과 동료들(1979)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 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내 의사소통을 촉매적 개념으로 포함하여 가족체계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개발하였다. 가족의 응집성(cohesion)은 가족성원들이 그들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관되는 정도이며, 이는 가족성원과의 정서적 유대, 가족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형, 가족의 전체 오락활동과 개인의 활동보장 정도로 측정된다(Olson, Portner & Bell, 1982). 가족의 적응력(adaptability)은 가족체계가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통제의 유형, 부모의 자녀 훈육방식, 가족성원들간의 협상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 분담,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이 측정 기준이다(Olson et al., 1982). 각 가족들은 이 두 차원에 따라 다시 각각 네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응집성이 높은 수준부터 매몰(enmeshed), 연결(connected), 분리(separated), 과잉분리(disengaged)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적응력은 높은 수준부터 혼동(chaotic), 융통적(flexible), 구조적(structured), 경직(rigid)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와같은 분류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다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응집성이나 적응력의 각 차원에서 균형잡힌 가족이 극단적인 수준에 있는 가족보다 일반적으로 잘 기능한다는 그들의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가지 차원에서 모두 중간에 위치하는 4가지 유형의 가족은 '균형가족(Balanced Family)'이며,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가지 차원 중 한 차원에서는 중간에 위치하나 다른 차원에서는 극단에 위치하는 8가지 유형의 가족은 '중간범위가족(Mid-Range Family)'이다. 또한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가지 차원에서 모두 극단에 위치하는 4가지 유형의 가족은 '극단가족(Extreme Family)'이다.

Olson과 동료들(1983)에 의하면, 이 세가지 수준의 가족체계들 중에서 '균형가족'은 가족내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서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데 비하여, '극단가족'은 가족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고 역기능적이기 쉽다. 이러한 그들의 가설과 주장은 몇몇 연구들(Druckman, 1979; 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5)이 실증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들에서 일반가족이나 정상가족은 역기능적 가족에 비해 '균형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치료를 받는 가족이나 각종 병리적 부적응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집단에서의 가족에는 '극단가족'이 더 많았다. 이같은 결과들은 순환모델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구분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판별하고, 상담적 개입이나 치료적 조치가 필요한 가족을 진단해내는 도구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는 최근 국내 연구들(유순덕, 1987; 임용우, 1984; 정민자, 1992)에서도 입증되었다.

한편 Olson과 동료들(1983)은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을 가족생활발달단계에 따라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발달적 변화를 겪는 결정적인 전이의 시기에는 그에 따른 상황적 스트레스와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도달할 때는 그들이 가족체계 내에서 더 많은 자유와 독립, 권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와 갈등을 겪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하는 시기로 특별히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Olson과 동료들(1982)의 가족체계유형을 통해 먼저 균형가족과 극단가족을 추출해내고, 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가족내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극단가족유형을 구체적인 하위유형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심리작용의 의미론적 접근

어떤 단어나 개념의 의미가 심리작용과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의미론적인 접근은 언어심리학(조명한, 1985: 151)이나 지각심리학(이수원·김정권·조궁호, 1973) 등에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정신의학(김종주·정용균·최일균, 1992)이나 상담, 심리치료 특히 가족치료분야(Anderson & Goolishian, 1988; de Shazer & Berg, 1992)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심리적 의미와 이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언어심리학에서는 더 분화된 심리의미론(psychological semantics)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 기억, 인지 등에 관한 신비를 밝혀내려 하고 있다(임지룡, 1992). 곧 심리의미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심리의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의미론을 구성하는 내용에는 의미연상이나 의미미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미분(semantic differential)은 어떤 대상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심리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Osgood과 동료들(1957)의 의미미분법은 언어의 의미 또는 가치와 같은 주관적 의미 표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의미미분법은 단어나 개념 등을 일정한 양극적(bipolar) 형용사의 척도 또는 연속선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는데, 이 개념들은 바로 하나의 자극이 되고 이 자극에서 받은 대인지각 내용이 반응차원에 반영되어서 반응자에게는 그 개념을 대신하게 된다. Osgood과 그의 동료들은 주관적 의미표상에는 측정되어지는 어떤

의미대상이나 피험자 또는 척도와는 관계없이, 일반적 요인으로 평가요인(evaluation factor), 역능요인(potency factor), 활동요인(activity factor)의 세 요인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장동환(1964)이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구조의 특유한 요인을 탐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의미미분척도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평균치분석이나 의미공간(semantic space)상에서의 거리집락분석 및 요인평점 분석 등이 있다(김광웅, 1984 : 213-216). 첫째, 평균치 분석방법은 각 기본개념에 따른 척도점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개념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거리집락분석은 의미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만일 어떤 두 개의 개념이 의미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깝다면 이 개념들의 의미는 서로 같다는 뜻이 된다. 셋째, 요인평점분석은 요인평점을 사용해서 개념이나 차원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 역능 활동요인이 모두 고려된 의미공간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작용의 의미론적 접근에 기반을 둔 의미미분법은 일반적인 사회지각, 대인지각 외에도 가족구성원간의 대인지각을 반영하는 심리적 거리 측정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3.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거리

위에서는 의미미분법을 통해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자극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의미미분법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의 내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가족구성원의 대인지각으로 활용하면 부·모·형·제·자·매 등과 같은 가족원을 표시하는 개념에 대한 지각 또는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의 분석을 통해서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김재은, 1974).

국내에서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로 교육학·기정학 방면의 연구들과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신치료방면의 연구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를 한 노영남(1982)의 연구나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거리를 분석한 윤진과 조석미(1980)의 연구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20세부터 70세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2가지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미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한 김재은(1974)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연구들 중 가장 대표적인 정양은(1965)의 연구에서는 정신신경증 집단과 정상인 집단의 대학생을 비교하였는데, 정신신경증 집단은 그들의 가족원을 현저하게 덜 긍정적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나자신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 정상집단에서는 부인데 반하여 정신신경증 집단은 형제이고, 다음으로 부보다 모가 자신과 더 가깝게 지각되었다.

정신분열증환자들의 가족 및 자아개념에 대한 염태호 등(1972)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으로서 정상집단과 정신신경증집단을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정신분열증집단은 부, 형제의 가족개념에서 정신신경증집단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정상집단과는 유사하게 평균적인 평정을 했고, 모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후에 발표된 오홍근(1979)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비교집단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서는 환자의 성별이 고려되어 정신질환자들의 부모동일시 실패를 시사하였다. 즉 남자환자에게서는 부에 대한 평가요인이 부정적이었고, 여자환자에게서는 모에게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개념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미분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가족내 심리적 환경의 한 측면을 밝혀보려는 노력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III. 용어의 정의 및 연구문제 설정

1. 용어의 정의

1) 가족체계유형

가족체계유형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는 입장에 근거하여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이 응집성(매몰, 연결, 분리, 과잉분리)과 적응력(혼동, 유통적, 구조적, 경직)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16가지 가족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나눈 세가지 유형 중에서 가족체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중간범위가족을 제외하고, 균형가족과 극단가족만을 추출한다.

(1) 균형가족 :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 차원에서 모두 중간수준에 위치하는 가족, 즉 응집성에서는 연결, 분리 수준에 속하고, 적응력에서는 유통적, 구조적 수준에 속하는 가족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정상가족의 성격을 갖는다. 연결·유통적, 연결·구조적, 분리·유통적, 분리·구조적 가족 등 4가지 유형이 이에 속한다.

(2) 극단가족 :

응집성과 적응력의 두 차원에서 모두 극단수준에 위치하는 가족, 즉 응집성에서는 매몰, 과잉분리 수준에 속하고, 적응력에서는 혼동, 경직 수준에 속하는 가족으로, 역기능적 가족이거나 문제가족적인 성격을 갖는다. 매몰·혼동, 매몰·경직, 과잉분리·혼동, 과잉분리·경직 가족 등 4가지 유형이 이에 속한다.

2) 가족원의 심리적 거리

가족원의 심리적 거리는 가족내 다른 가족원에 대한 대인지각 또는 사회적 지각 경험으로 타가족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나 의미(김재은, 1974)에 의해 측정되는 심리적으로 가깝고 먼 정도를 말한다. 한 가족원이 다른 가족원에게서 받은 지각내용이 그 다른 가족원을 대리하게 되고, 대리된 내용에 따라 일정한 반응차원 위에서 그 대상 가족원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다른 대상 가족원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녀가 자각한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체적·하위요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에서 하위요인별 단위점수 차이는 어떠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각 가족개념(부, 모, 형제·자매)의 의미 공간상의 배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상호거리와 직선거리는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가족체계유형

Ol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개발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척도(FACES II)를 통해 분류하였다. 우리 실정에 맞게 문장표현을 수정한 뒤 사용한 이 척도는 5점 Likert방식이며,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 16개, 적응력을 측정하는 문항 14개로 총 문항수는 30개이다. 가족의 응집성척도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의 공동시간과 친구관계, 가족의 취미와 오락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의 적응력 척도는 가족의 지도, 통제정도, 권력구조, 혼육, 역할과 가족규칙으로 구성되었다.

2) 가족원의 심리적 거리

Osgood과 동료들(1957), 정양은(1965)의 연구를

토대로 가족원 상호간이 지각하는 심리학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김재은(1974)이 사용한 의미미분법 (Semantic Differential : SD)으로 측정하였는데, 7점 Likert방식으로 각 가족개념에 대한 형용사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는데, 아버지에 대하여 10문항, 어머니에 대하여 10문항, 형제·자매에 대하여 10 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각 10개의 문항들은 평가요인(Evaluation Factor) 4개, 역능요인(Potency Factor) 3개, 활동요인(Activity Factor) 3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1) 신뢰도 :

Cronbach의 계수로 산출한 결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척도는 각각 $\alpha=.84$, 부와의 심리적 거리 $\alpha=.76$, 모와의 심리적 거리 $\alpha=.74$,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 $\alpha=.81$ 로 모든 척도가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타당도 :

본 연구에서는 안면타당도 방법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는데,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강사 3인과 박사과정 전공자 2인으로부터 척도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다.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12, 13 세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유안진, 1987 : 279), 국민학교 6학년을 표집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학생들과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50.0%, 여 49.9%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16, 17세가 42.2%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부(56.5%)와 모(55.7%) 모두 40대가 절반이 넘었으며, 학력은 부는 고졸(35.8%)과 대졸이상(36.6%)이, 모는 고졸(44.3%)이 가장 많았다. 부의 직업은 상업·자영업(33.7%), 사무직(22.1%)의 빈도가 높았고, 모는 가정주부(58.6%)가 많았다.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한 소득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상(40.8%), 중(40.7%)에 속한다고 보았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에 앞서서 1992년 5월에 남·녀 고등학교 2개 학급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검토하고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115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요원들이 소개받은 교사를 통하여 학교로 찾아가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한 후 회수하였는데, 질문지 응답작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응답누락이나 불성실한 기재라고 판단된 79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1072부가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할표 분석, ANOVA에 의한 F검증, Cronbach의 α 검증 등이었다.

표 1.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거리 척도의 요인별 구성

평가요인(E)	역능요인(P)	활동요인(A)
깨끗하다-더럽다	넓다-좁다	빠르다-느리다
추하다-아름답다	작다-크다	무디다-날카롭다
좋다-나쁘다	연하다-단단하다	이르다-늦다
멀다-가깝다		

V.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자녀의 지각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반적 경향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평균은 58.

11(최고 80, 최저 23), 가족의 적응력 평균은 46.80(최고 69, 최저 14)으로 가능점수와 비교해보면, 모두 평균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거리에서는 평균이 부에 대해서는 50.44, 모에 대해서는 51.69,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47.75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에 대해서 가장 심리적 거리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청소년자녀의 지각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반적 경향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가능점수범위
가족의 응집성	58.11	9.67	16~80
가족의 적응력	46.80	9.37	14~70
심리적 거리			
부	50.44	7.99	10~70
모	51.69	7.27	10~70
형제·자매	47.75	8.28	10~70

표 3. 청소년의 지각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번 도	응 집 성				
	과잉분리 (23~48)	분 리 (49~58)	연 결 (59~68)	매 몰 (69~80)	합 계
적	1	4	52	80	137
	0.7	2.9	38.0	58.4	100
	0.7	1.3	12.7	64.0	—
	0.1	0.4	5.3	8.1	13.9
응	1	86	246	41	374
	0.3	23.0	65.8	11.0	100
	0.7	28.4	60.0	32.8	—
	0.1	8.7	24.9	4.2	37.9
력	35	154	98	4	291
	12.0	52.9	33.7	1.4	100
	23.6	50.8	23.9	3.2	—
	3.5	15.6	9.9	0.4	29.5
	111	59	14	—	184
	60.3	32.1	7.6	—	100
	75.0	19.5	3.4	—	—
	11.3	6.0	1.4	—	29.5
합 계	148	303	410	125	986
	—	—	—	—	—
	100	100	100	100	—
	15.0	30.7	41.6	12.7	100

표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체적 차이

가족개념	통계치	가족체계유형			F값
		균형가족	매몰·혼동가족	파잉분리·경직가족	
부	n	562	79	109	
	평균	50.99	57.78	41.80	126.91***
	표준편차	6.87	6.58	8.14	
모	n	574	78	110	
	평균	52.39	56.59	45.49	74.40***
	표준편차	6.49	5.95	7.16	
형제·자매	n	553	71	102	
	평균	48.22	53.31	40.71	60.63***
	표준편차	7.80	5.99	8.85	

(* *** : p<.001)

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

표 3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따른 16개의 가족체계유형¹⁾의 분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다시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의 연구에 근거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정상가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균형가족에 거의 과반수를 넘는 가족(59.1%)이 속하고, 중간범위의 가족에 21.3%의 가족이,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수준의 가족에 19.5%의 가족이 속한다²⁾. 여기에서 극단가족의 하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잉분리·혼동가족이나 매몰·경직가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³⁾.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이 두 유형을 제외하고

극단가족을 매몰·혼동가족과 파잉분리·경직가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전체적·하위요인별 차이

표 4와 표 5를 보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4에서는 세 가족체계유형별로 청소년자녀의 각 가족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부 F=126.91***, 모 F=74.40***, 형제 F=60.63***, p<.001), 부, 모, 형제·자매 모두에서 매몰·혼동가족이 가장 점수가 높고, 그 다음이 균형가족이며, 파잉분리·경직가족은 점수가 가장 낮아, 역기능가족 안에서도 가족원들끼리의 응집도가 높은 매몰·혼동가족이 다른 가족원들을 유난히 가까운 것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파잉분리·경직가족은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는 세 가족체계유형별로 청소년자녀의 각 가족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부에서의 평가 F=170.12***, 역능 F=42.57***, 활동 F=23.67***, 모에서의 평가 F=102.37***, 역능 F=17.52***, 활동 F=19.01***, 형제·자매에서의 평가 F=72.52***, 역능 F=

1) Olson과 동료들(1982)의 연구에 근거하여, 응집성과 적응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최하위점수*(M-SD)*M*(M+SD)*최상위점수)해서 각각 4집단으로 구분한 것에 기인하였다.

2) 이러한 분포는 일반가족을 중심으로 볼 때, 정민자(1992)의 연구에서의 균형가족 61.1%, 중간범위 가족 25.8%, 극단수준가족 13.1%, 손정영·김순옥(1991)의 연구에서의 66.6%, 18.7%, 9.9%, 유순덕(1987)의 연구에서의 50.4%, 38.5%, 11.1%와 비교해 볼 때, 균형가족의 비율은 앞의 두 연구보다 낮으며 극단가족의 비율은 세 연구보다 높다. 이는 각 조사에서의 척도문항수의 차이와 표본집단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는 정민자(1992)의 연구나 손정영·김순옥(1991)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바이다.

16.18***, 활동 $F=15.34^{***}$, $p<.001$). 표 4에서처럼 매몰·혼동가족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과잉분리·경직가족은 세 가족체계 유형 중 가장 점수가 낮아, 역기능적 가족인 극단 수준의 가족들은 가족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지나치게 가깝게 지각하거나 멀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에 따르면, 매몰가족에서는 가족원간 정서적 유대가 매우 높고, 가족의 경계에서 외부경계는 폐쇄적이고 내부경계는 개방적이며 세대간 경계는 혼잡한 데 비하여, 과잉분리가족에서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낮고,

표 5.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하위요인별 차이

가족개념 하위요인	통계치	가족체계유형			F값
		균형가족	매몰·혼동 가족	과잉분리· 경직 가족	
부					
평 가	평 균	21.81	25.33	16.01	170.12***
	표준편차	3.56	3.19	4.29	
역 능	평 균	15.05	16.44	12.93	42.57***
	표준편차	2.68	2.75	2.84	
활 동	평 균	14.21	16.01	12.90	23.67***
	표준편차	3.02	3.00	3.33	
모					
평 가	평 균	24.39	26.35	20.30	102.37***
	표준편차	2.97	2.86	4.09	
역 능	평 균	13.48	14.50	12.19	17.52***
	표준편차	2.81	2.57	2.40	
활 동	평 균	14.49	15.71	13.00	19.01***
	표준편차	3.04	3.00	3.16	
형제·자매					
평 가	평 균	21.72	24.97	17.64	72.52***
	표준편차	4.03	3.06	4.95	
역 능	평 균	12.96	13.51	11.24	16.18***
	표준편차	3.09	2.86	2.88	
활 동	평 균	13.52	14.83	11.91	15.34***
	표준편차	3.56	3.30	3.57	

(*** : $p<.001$)

외부 경계가 개방적이고 내부 경계는 폐쇄적이며 세대간 경계는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 위의 결과는 바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하위요인별

단위점수 차이와 각 가족개념의 의미공간상의 배열

표 6을 보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하위요인별 단위점수는 차이가 있었다(부에서의

표 6.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의 하위요인별 단위점수 차이

가족개념 하위요인	통계치	가족체계유형			F 값
		균형가족	매몰·혼동 가족	과잉분리· 경직 가족	
부					
평 가	n	571	79	110	
	평 균	5.45	6.33	4.00	170.12***
	표준편차	0.89	0.79	1.07	
역 능	n	567	79	109	
	평 균	5.01	5.48	4.31	42.57***
	표준편차	0.89	0.92	0.95	
활 동	n	573	79	110	
	평 균	4.74	5.34	4.30	23.67***
	표준편차	1.01	1.00	1.11	
모					
평 가	n	578	78	110	
	평 균	6.10	6.59	5.08	102.37***
	표준편차	0.74	0.71	1.02	
역 능	n	578	79	110	
	평 균	4.49	4.84	4.06	17.52***
	표준편차	0.94	0.86	0.80	
활 동	n	580	79	110	
	평 균	4.83	5.24	4.33	19.01***
	표준편차	1.01	1.00	1.05	
형제·자매					
평 가	n	560	71	104	
	평 균	5.43	6.24	4.41	72.52***
	표준편차	1.01	0.77	1.24	
역 능	n	557	71	102	
	평 균	4.32	4.50	3.75	16.18***
	표준편차	1.03	0.95	0.96	
활 동	n	557	71	104	
	평 균	4.51	4.94	3.97	15.34***
	표준편차	1.19	1.10	1.19	

(*** : p<.001)

평가 $F=170.12^{***}$, 역능 $F=42.57^{***}$, 활동 $F=23.67^{***}$, 모에서의 평가 $F=102.37^{***}$, 역능 $F=17.52^{***}$, 활동 $F=19.01^{***}$, 형제·자매에서의 평가 $F=72.52^{***}$, 역능 $F=16.18^{***}$, 활동 $F=15.34^{***}$, $p<.001$). 역시 매몰·혼동가족에서 가장 높았고, 균형가족, 과잉분리·경직가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표 6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 역능, 활동 등 하위요인별로 삼차원으로 표시된 의미공간 (semantic space)에 의해 가족개념을 분석해보면 대략 그림 1과 같다. 이 의미공간에서의 위치 표시는 측정된 개념(보통 2개 이상) 상호간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지룡, 199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지각을 통하여 각 가족원들의 의미공간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과잉분리·경직가족의 형제·자매만이 유난히 다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즉 역능과 활동요인에서 유일하게 부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세 가족체계유형에서의 다른 가족개념들은 대체로 평가, 역능, 활동 차원에서 모두 정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몰·혼동가족의 가족개념들이 세 차원에서 모두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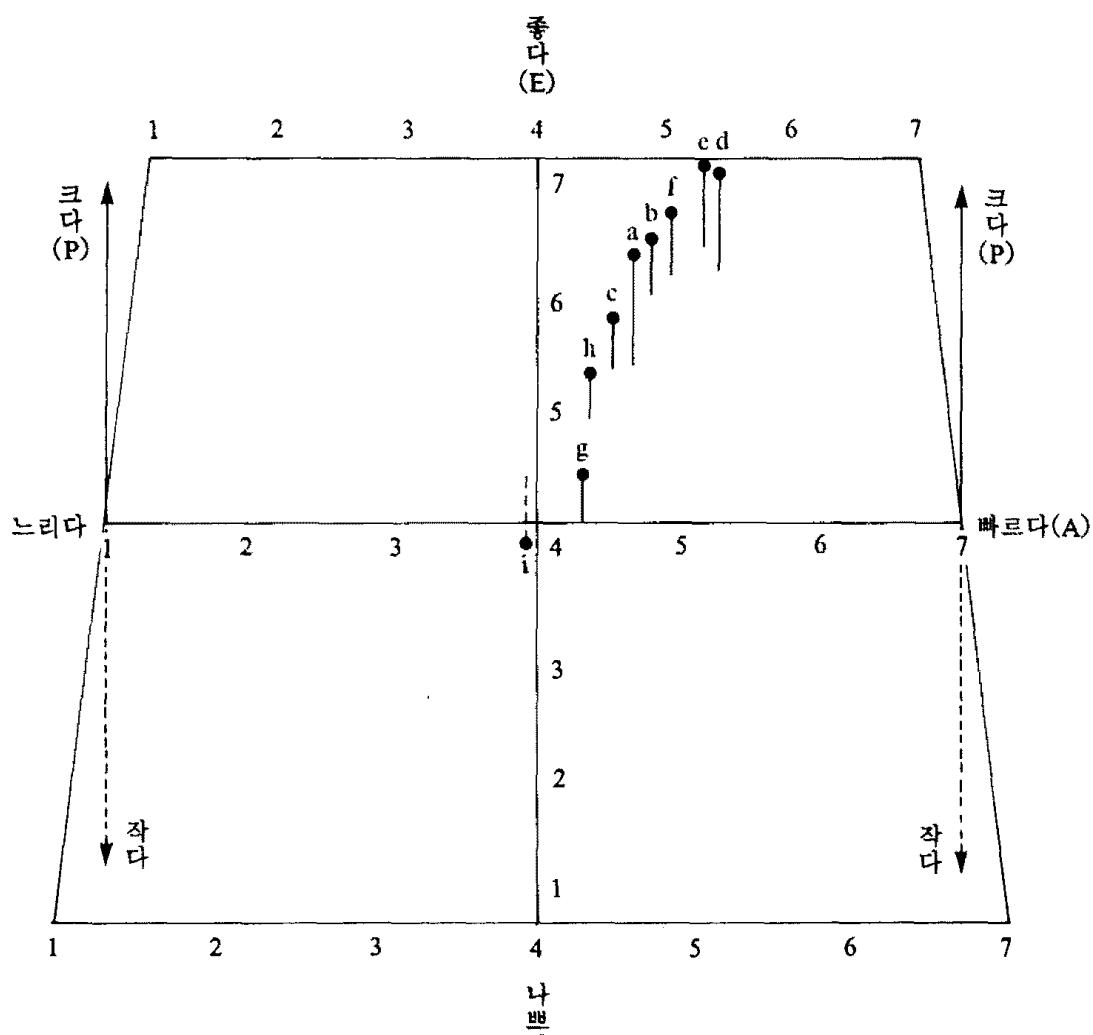


그림 1.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의 의미공간상의 배열.

표 7.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의미공간내의 상호거리

가족개념	가족체계유형		
	균형가족	매몰·혼동가족	파잉분리·경직가족
부	모	부	모
모	1.85	1.55	2.22
형제·자매	1.95 1.93	1.86 1.56	2.31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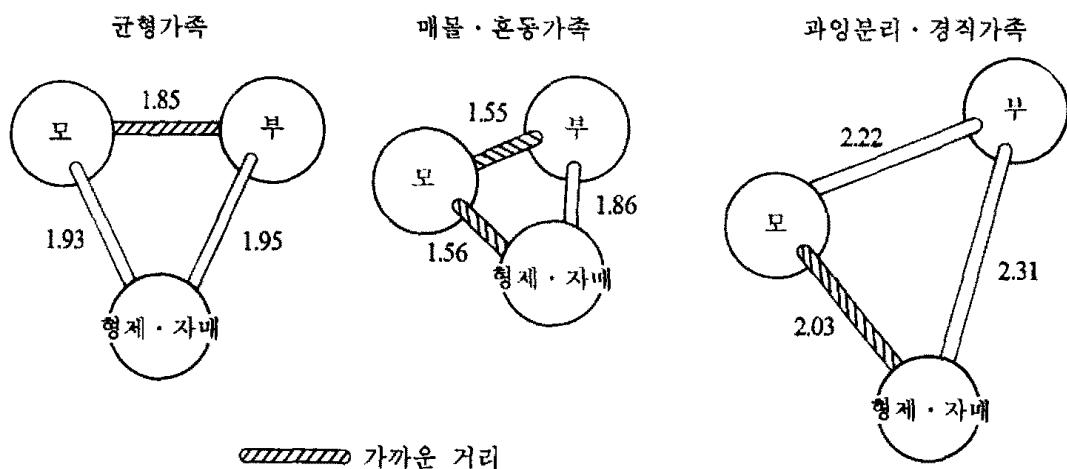


그림 2. 공간상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상호거리.

그 다음이 균형가족의 가족개념들이 중간에 무리지어 있고, 파잉분리·경직가족의 가족개념이 세차원에서 모두 가장 낮은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 가족체계유형의 가족개념은 역능 차원에서 가장 뚜렷이 구분되며, 세 가족체계유형에서 모두 역능요인에서는 대체로 부가, 활동요인에서는 대체로 모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의미공간 내의 상호거리와 직선거리

평가, 역능, 활동의 삼차원이 구성하는 의미공간에서의 각 개념들의 상호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D점수⁴⁾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고,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표 7을 보면, 의미공간내에서의 가족개념간 상호거리가

매몰·혼동가족에서 가장 가깝고, 파잉분리·경직가족에서 가장 멀다. 이는 또한 평가, 역능, 활동차원에서 매몰·혼동가족에서는 가족개념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여겨짐을 의미하는 반면, 파잉분리·경직가족에서는 가족개념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에서는 평가요인중 ‘가깝다-멀다’ 문항의 단위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표 9에서는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직선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표 8을 보면, 각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자녀가 다른 가족원들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는 차이가 있다(부 F=148.42***, 모 F=87.90***, 형제·자매 F=46.87***, p<.001). 표 8에서의 단위점수는 역시 매몰·혼동가족, 균형가족, 파잉분리·경직가족의 순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표 9에서 나타난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직선거리도 같은 순서로 가깝다.

그림 2, 3에서 보면, 세 가족체계유형 중 가족개념간 상호거리와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은

4) D점수는 Osgood의 공식에 따라 $D_{ij} = \sqrt{\sum_i d_{ij}^2}$ 로 계산된다(Osgood과 동료들, 1957). 이는 각 가족개념간 평가, 역능, 활동요인의 차를 제곱해서 합친 것들의 제곱근이다.

매몰·혼동가족이며, 가장 먼 가족은 과잉분리·경직가족이다. 이 가족체계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형가족에서는 가족간의 직선거리는 매몰·혼동가족에 비해서는 멀고, 과잉분리·경직가족에 비해서는 가깝다. 그리고 가족간 상호거리에서는 부와 모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자녀들과의 거리보다 가깝다.

이는 정상가족에서는 부부체계가 부모·자녀체계보다 공고하고 연합이 잘되어 있다는 사실(Goldenberg와 Goldenberg, 1991)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가족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부모가 연합을 이루는 종추적인 역할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부모끼리의 연합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델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력을 제공해주는데, 균형가족에서는 이러한 부부간 하위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몰·혼동가족에서는 가족간 직선거리가 타가족체계유형에 비하여 가장 가깝고, 모가족관계내에서 중심이 되어, 부와 형제·자매와 비슷하게 가까운 상호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치료이론가 중 Bowen(1978)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뭉쳐져 일체감을 형성하여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일 때, 역기능적 가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매몰·혼동가족에서 나타나는 가족내의 밀착된 상호거리와 관계는 바로 이러한 점과 관

표 8.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가깝다-멀다'(E)의 단위점수 차이

가족개념	통계치	가족체계유형			F값
		균형가족	매몰·혼동 가족	과잉분리· 경직 가족	
부	n	572	79	110	
	평균	4.98	6.32	2.89	148.42***
	표준편차	1.49	0.93	1.38	
	n	582	80	110	
모	평균	5.98	6.60	4.64	87.90***
	표준편차	1.08	1.74	1.44	
	n	561	71	104	
	평균	5.41	6.39	4.32	46.87***
형제·자매	표준편차	1.42	0.92	1.70	

(*** : p<.001)

표 9. '가깝다-멀다'(E)의 단위점수에 의한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의미공간내의 직선거리

가족개념	가족체계유형		
	균형가족	매몰·혼동 가족	과잉분리· 경직 가족
부	모	부	부
모	1.00	0.28	1.75
형제·자매	0.43 0.57	0.07 0.21	1.43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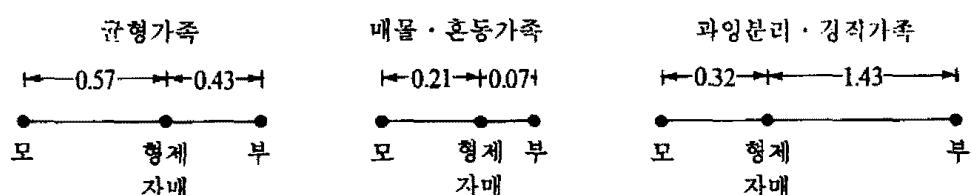


그림 3. 평면상 각 가족체계유형에서의 가족개념간 직선거리.

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owen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특히 모-환자와의 공생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정서적으로 밀착되고 공생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후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송성자, 1992).

과잉분리 경직가족에서는 다른 가족체계유형에 비하여 가족간의 직선거리가 가장 멀고, 가족간의 상호거리도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와 형제·자매간의 거리가 부와 모의 거리나 부와 형제·자매와의 거리보다 다소 가깝다. 이것을 통해, 과잉분리·경직가족에서는 부가 다른 가족원과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의 지각을 중심으로, 가족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진단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체계유형분류에 의해 정상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들을 추출하고, 주관적 의미표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그 가족들에서의 심리적 거리를 비교·분석해봄으로써,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가 필요한 가족들의 내적인 관계와 심리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072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척도(각각 $\alpha=.84$), 가족내 심리적 거리 척도(부 $\alpha=.76$, 모 $\alpha=.74$, 형제·자매 $\alpha=.81$)를 측정도구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은 높고,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는 전반적으로 가깝다.

둘째,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은 거의 과반수를 넘는 가족이 정상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가족에 속하고, 그 다음이 중간범위의 가족이고, 역기능적 가족인 극단가족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또한 극단가족 안에서도 과잉분리·흔

동가족이나 매몰·경직가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매몰·혼동가족과 과잉분리·경직가족이 많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일치하는 현상으로 한국가족의 가족체계유형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세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자녀의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는 전체적으로 또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나 평가, 역능, 활동 등의 하위요인별로나 매몰·혼동가족에서 가족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장 깊게 지각하고, 그 다음이 균형가족이며, 과잉분리·경직가족에서 가장 멀게 지각한다. 따라서 역기능가족에서는 가족원을 매우 친밀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아니면 소원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치료자인 Bowen(1978)에 따르면, 한 개인내에서 감정과 지성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부적응과 정신신체적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능 등도 아주 저조한데, 이를 가족관계에 적용시키면,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라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Goldenberg와 Goldenberg, 1991). 이 상태의 가족에는 가족원들이 지나치게 서로에게 관여하고 정서적으로 상호의존해서 생기는 과잉친밀성과 연합했다가 배척하곤 하는 정서적 긴장이 자주 나타난다.

한편 Minuchin(1974)은 가족내 경계선이 심하게 밀착된 가족구조에서는 강한 소속감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고,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대처를 방해받는 반면, 경계선이 지나치게 유리된 가족에서는 무반응적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가족들이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분리될 때 모두가 가족기능에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네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 모, 형제·자매와의 심리적 거리는 하위요인별 단위점수는 차이가 있고, 이는 역시 매몰·혼동가족, 균형가족, 과잉분리·경직가족의 순서를 따른다. 또한 하위요인별로는 세 가족체계유형 모두에서 평가요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그 다음으로 활동요인, 역능요인의 순이다. 이러한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진 삼차원의 의미공간에서 보면, 역능과 활동공간에서 부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잉분리·경직가족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모든 가족원들이 정적 공간을 차지하며, 부는 역능차원에서 모든 활동차원에서 우위에 있다. 이 결과들을 통해 매몰·혼동가족에서의 가족개념이 가장 긍정적이고, 과잉분리·경직가족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어서 역기능적인 가족들에서의 가족개념은 지나치게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의미공간내에서의 가족개념간 상호거리와 직선거리에서, 역시 매몰·혼동가족에서 가장 가깝고, 과잉분리·경직가족에서 가장 멀리 나타난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 역능, 활동 차원에서 매몰·혼동가족은 가족개념들을 유사하게 지각하는 반면, 과잉분리·경직가족은 지각하는 가족개념들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균형가족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부부간으로서, 이를 Minuchin(1974)의 하위체계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람직한 가족체계를 이루기 위한 조건인 공고한 부부 하위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몰·혼동가족에서는 모가 중심이 되어 부와 자녀들과 거의 비슷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가족원들이 정서적으로 매몰되어 있고, 지나치게 급격히 변화하거나 안정감이 없는 가족체계에서는 모의 역할이 지배적이 되는 가족분위기를 형성함을 엿볼 수 있으며, 모를 주축으로 한 가족원간의 정서적 공생관계를 시사받을 수 있다. 한편 과잉분리·경직가족에서는 가족간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특히 부가 다른 가족원에 비해 고립되어 있는 양상을 띤다. 이는 이러한 가족유형내에서 부가 무력한 존재로 보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거부적이기 때문에 소원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역기능적 가족은 정상가족과 가족내 관계나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의미 지각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역기능적 가족안에서도 구체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므로 심한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임상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가족으로 설정한 극단수준의 가족들과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인 청소년자녀의 입장에서 지각된 가족체계유형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가족원이 포함되는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또 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인 청소년자녀의 성별효과나 연령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를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네째, 본 연구는 가족개념간 거리를 분석할 때, 응답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형제·자매로 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자녀와 부, 모간의 밀착이나 거리감 등의 가족역동은 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의 고려와 아울러 앞으로 한국가족에서의 역기능적 가족체계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체계의 구체적인 하위유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나 임상장면에서의 관찰이 포함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전망해본다.

참고문헌

- 1) 김광웅(198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박영사.
- 2) 김재온(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3) 김종주·정용균·최일균(1992). 신체화 환자의 호소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1(5) : 924-948.
- 4)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 205-223.
- 5) 석말숙(1989). 문제행동청소년가족과 일반가족 간의 가족역동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6) 손정영·김순옥(1991).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

- 회지 9(2) : 345-366.
- 7) 송성자(1992).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흥의재.
 - 8) 염태호·김상태·정동철(1972). 정신분열증환자의 가족 및 자아개념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1(2) : 65-75.
 - 9) 오홍근(1979). 의미척도방법에 의한 정신의학적 개념에 대한 조사연구. 신경정신의학 18(2) : 201-210.
 - 10) 유준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유안진(1987). 인간별달신강. 서울 : 문음사.
 - 12) 윤진·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 : 75-85.
 - 13) 이길홍·김현수·민병근(1982).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4) : 611-626.
 - 14) 이수원·김정권·조금호(1974). 인물평가형용사의 적절성, 호오도 및 양면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2(1) : 41-46.
 - 15) 이창섭(1977).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6(2) : 168-173.
 - 16)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17)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서울 : 탑출판사.
 - 18) 장동환(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9 : 191-206.
 - 19)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유형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 189-218.
 - 20) 정양은(1965). 정신-신경증적 집단의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연구 3(2) : 1-12.
 - 21) 정인채(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부모에 대한 태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22) 조명한(1985). 언어심리학. 서울 : 민음사.
 - 23) 조숙행(1979).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8(3) : 290-301.
 - 24)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25) Anderson, H. & Goolishian, H.A.(1988). Human systems as linguistic systems : Preliminary and evolving ideas about the implications for clinical theory. *Family Process* 27 : 371-393.
 - 26)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 : 85-98.
 - 27)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28) de Shazer, S. & Berg, I.K.(1992). Doing therapy : A post-structural re-vis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1) : 71-81.
 - 29) Druckman, J.M.(1979). A family 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627-636.
 - 30)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C.(1985).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5 : 174-183.
 - 31) Goldenberg, I. & Goldenberg, H.(1991). Family Therapy - An Overview - .3rd ed. Pacific Grove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32) Kantor, D. & Lehr, W.(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 Jossey-Bass.
 - 33)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34) Olson, D.H., Portner, J. & Bell, R. (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n D.H. Olson, H.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 35) Olson, D.H., Russell, C.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 Theoretical updates. *Family Process* 22 : 69-83.
 - 36) Olson, D.H., Sprenkle, D.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 3-28.
 - 37)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 of Illinois Press.